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우선 해제하라”

뉴스초점

전남도가 정부부처에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환경부와 논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가 상반기 내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지만,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에 발목이 잡혀 10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자 사업 타당성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일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진행중인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흑산공항만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흑산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섬 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표류하자 전남도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우선 검토 지속 건의 10년째 지지부진...이용객 수요추정치 문제 부정적 여론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5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했으나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을 보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연기, 같은 해 10월 심의 중단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환경부, 국토부에 2019년 7월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최근 흑산공항 관련 내부 검토 내용과 201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해 기존 이용객 수요추정치를 문제 삼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최근 자료는 지난 2016년 신안군에서 제출한

선박통행량 자료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국립공원위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단순한 선박통행량만 가지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2013년 KDI의 예타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 통행량은 기존 선박통행량만 아니라 노선, 운임, 지역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추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3년 4.38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2012년 이후 흑산도 선박통행량의 감소로 인해 다소 하락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을 위협할 정도 역시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립공원 위 심의가 중단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경제, 환경, 안전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보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흑산공항은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동시간 단축 및 여객선의 대체·보완 교통수단으로 도서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 지역의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긴급구난을 위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 흑산공항 예산 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심의 면제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공사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함께 추진했던 울산공항은 오는 4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산 11번지 일원 54만7000㎡에 연장 1160m 폭 30m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1833억원이다. 지난 2016년 9월 이미 공사를 발주해 시공회사는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 예비계약을 체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진도군, 전남도 최초 ‘무형유산도시’ 선정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학술대회 등 사업 추진

진도군이 전남도 최초로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에 선정돼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원을 받아 무형유산의 목록화와 기록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기획공연, 학술대회 등 무형유산 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국가무형문화재 5종, 도지정무형문화재 6

종, 향토무형문화유산 8종 등 다양한 무형 문화 유산을 보유한 무형유산의 보고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번 무형유산도시 선정은 진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진도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박형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시-대학·교육청, AI 인재양성 업무협약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손잡고 나선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교육청,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와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 공유, 참여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 온라인 교육 및 창업 지원 ▲인공지능을 위한 우수인재 및 교육시설 지원 ▲기관 인공지능 교육관련 우수강사 공유

등이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각종 과학체험활동 및 과학골든벨 AI 아카데미 개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전남대는 AI융합대학, 조선대는 SW중심대학, 호남대는 AI중심대학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인공지능대학원을 열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각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하성 주중대사 “올 상반기 시진핑 방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예상된다 밝혔다.

장하성 대사는 20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한중 관계에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장 대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이 방중해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強)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일 정상회담은 올해 우리가 호스트라 올해 안에 열리면 리커창 총리도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한·중·일 해답이 해를 넘겨 열리기도 했으나 가능한 올해 안에 열리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 지도자들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시 주석과 리 총리가 한국과 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면서 “여러 차례 협력하자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 주석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한중 부처 간 협의도 많을 것”이라면서 “양 국민 간에 우호적인 정서를 확대하는 공감대가 있어 관련 행사도 있지 않겠느냐”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대사관 차원에서 올해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35세 中 여성 입국 즉시 격리

제한된 범위내 사람간 전파 가능 보건당국, 국내확산 차단 ‘충력’

중국 우한(武漢)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확진자가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다만 국내 첫 확진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바로 격리됐다. <관련기사 8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세 중국 국적 여성으로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이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19일 인천으로 입국했다. 탑승 항공기는 19일 낮 12시 11분에 도착한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이다.

환자는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질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날 오전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질병은 환자의 비행기 내 동선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앞뒤 근접해 앉은 승객, 환자를 담당한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탑승자 명단도 파악 중이다.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능동감시는 환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마지막 접촉일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 후 검사를 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확진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 사회에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와 동행한 사람은 5명으로 아직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확진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을 포함해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확진환자, 야생동물 등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 역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동행자의 향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北개별관광, 중국 통한 패키지관광 유력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에 있는 외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용하고 한국인이 여기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인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처음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

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북한이 허용만 한다면 한국인도 이들 상품을 이용해 북한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개별여행은 남북교류협력법 등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남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하며 그 기준으로 “남북 교류협력법” 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 불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허용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원로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점 주차 23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전원부근 상업지 347㎡ 다세대 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면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천
- 월산동 무전동 부근 서방도점 대지 73㎡ 상가 61㎡ 매도 2억3백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은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남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국유권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공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동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모빌 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외 내장사사이 추경개매 403㎡ 가계 197㎡ 카페용 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암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목포시 대양동 1층주차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면(광의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빌딩 대물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있고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내대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